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8.2.(일)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DMZ정책과 (DMZ정책팀)	과 장	김영옥 (031-8030-2650)					
		팀 장	김수진 (031-8030-2651)					
		담당자	최애경 (031-8030-2655)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홍보관 ‘더그리브스’ 개관

- 옛 미군기지 역사성 반영... 영화관 콘셉트로 재해석한 캠프그리브스 홍보 공간 조성
- 매표소·필름 전시·극장 포토존까지...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몰입감 높은 서사 선사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이자 역사 문화공간인 캠프그리브스의 과거를 둘러보며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옛 미군기지를 활용한 관광지인 캠프그리브스 홍보를 위해 기지 내 창고를 리모델링한 홍보전시관 ‘더그리브스(The Greaves)’를 지난 달 31일 공식 개관했다.

더그리브스 전시관은 1950년대 미국 영화관 콘셉트로 꾸며진 스토리텔링형 홍보 공간이다. 단순한 유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도록 오프닝, 하이라이트, 엔딩의 3단계 서사 구조로 기획됐다.

홍보관의 시작인 ‘오프닝’ 공간은 전시관 전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1950년대 미국 극장 입구를 그대로 재현하여 당시의 감성을 담은 매표소와 매점 등을 연출해 관람객들이 본격적인 전시를 마주하기 전 레트로 감성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암막 커튼을 지나면 본격적인 역사 여행이 시작된다. 홍보관의 핵심인 ‘하이라이트’ 공간은 ‘영화 필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 속에 당시 주둔했던 미군들의 일상과 흔적이 담긴 사진들이 필름 프레임처럼 펼쳐져 눈

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공간 내 마련된 영화관 의자에 앉아 빔프로젝터로 상영되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 과거 캠프그리브스 주둔 부대의 연혁과 빛바랜 옛 모습들을 마치 한 편의 고전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엔딩’ 공간은 관객 참여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실제 극장에 온 듯한 연출을 통해 관람객이 전시의 여운을 즐기는 동시에, 직접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포토존을 제공한다.

김영옥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더그리브스 홍보관은 캠프그리브스가 가진 고유의 역사적 배경에 ‘영화관’이라는 흥미로운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공간”이라며 “DMZ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역사를 배우는 유익함과 레트로 감성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